

하연화

# 춤

해설이 있는 우리 춤



2009.5.9 (토) 오후 3시/6시 민주공원 소극장

■ 주최 : 하연화 무용단 ■ 후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춤매 배김새, (사)부신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공원  
■ 문의 : 051-635-5370, 016-436-7121

일반적으로 전통춤 공연이라 하면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겹거나 기피되는 공연 장르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공연에서 추어지는 작품들의  
의미와 역사적 내용들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 해줌으로서 우리의  
전통춤이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 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우리춤의 아름다움과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계승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전통춤 공연을  
친근감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춤' 공연을 통해서 지역 전통춤 발전과  
연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수 있을것이다.

## 2009 하연화의 춤 해설이 있는 우리 춤

일 시 : 2009년 5월9일(토) 오후 3시, 6시 (2회 공연)  
장 소 : 민주공원 소극장  
주 최 : 하연화 무용단  
후 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춤패 배김새,  
(사)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공원  
문 의 : 051-635-5370, 016-436-7121

### 출연진

하연화, 구영희, 김민경, 조은정, 김경아, 심부근, 하원겸,  
남산놀이마당

### 해설

홍순연 (소리꾼/술래소리마당 대표)

### 스태프

기 획 : 심종석(일터소극장 기획실)  
무대감독 : 안주현(춤패 배김새 단원)  
음 향 : 노호준(민주공원 음향감독)  
조 명 : 류성호(민주공원 조명감독)  
사진/영상 : 박창현(이브 Studio대표)  
진 행 : 김희란, 주영희, 김희리, 남진아, 정현주, 정혜미, 김지선, 양한나

## 춘앵전 - Chun aeng jeon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어느 봄날 아침 뜨락을 거닐다가 우연히 버드나무에서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 감흥을 받아 무용화한 것으로 순조 28년 7월 순원 숙황후의 보령 40을 경축하기 위한 춤을 축약한 것이다. 꾀꼬리를 상징하는 앵삼과 하과, 수대, 한삼을 끼고 화려한 화문석 위에 추는 우아한 춤이다.

출연 : 하연화

## 살풀이춤 - Salpuri chum

한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쁨이 있는 인간의 이중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한 살풀이 춤은 살풀이라는 독특한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다지듯 내딛는 발디딤은 땅의 기운을 단전을 거쳐 손끝의 수건에까지 전하며 그 기운은 호화로운 수건놀림으로 이어진다. 숨막힐 듯 한 호흡의 무게감과 깊은 내면에서 뽑아내는 듯 한 팔의 선, 은근한 고개 짓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 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무태는 내면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오늘의 이 춤은 근대 무용계의 시조이며 대가인 한성준옹에서 故 한영숙선생으로 이어진 춤이다.

출연 : 구영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브니엘 예술중학교 강사)

## 태평무 - Tea Pyung Mu

태평무는 국가의 안녕과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축원하기 위해 추어졌다고 한다. 오늘 추어지는 태평무는 한국 근대무용의 시조인 한성준선생이 1900년대쯤 경기도 무속음악인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 등의 가락을 기초로 하여 만든 춤으로 故 한영숙에 이어진 춤이다. 왕비의 복식이 매우 화려하며, 우아한 자태미가 돋보이고 춤동작에서는 위엄이 서려있어 절제된 정한미(精悍美)가 담겨져 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발디딤새와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하면서도 단아하고, 경쾌하면서도 절도감이 있어 도도함까지 엿보이는 이 춤을 난에 비유하기도 한다.

출연 : 하연화

## 장고춤-Janggo chum

풍물놀이 중 설장고 개인 놀음으로 오늘 춤은 군무의 형식을 취하여 다양한 춤사위로 장단의 변화를 주어 무대의 조화를 추구 하였다. 장고를 어깨에 둘러매고 허리를 휘감아 날렵하게 동여맨 채 느린 장단의 흐름에 태를 더하고 처음에는 흥청거리며 춤을 추다가 차츰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며 다양한 설장고 가락을 구사하여 흥과 신명을 자아내는 춤이 펼쳐진다.

출연 : 조은정, 심부근, 하원검

## 진주교방굿거리춤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Jinju gyobang gugeoli chum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고려 문종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기 제도에 의해 교방청에서 전승되어진 춤이다. 궁중교방 계열의 춤으로 고종조에 궁중무희였던 최완자가 낙향하여 교방청에서 전수하였고 여기에 김녹주의 소고춤이 더해져 이것이 故 김수악선생에게 전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춤의 성격은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차분하면서도 은은하며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무태로서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출연 : 하연화

## 배김허튼춤-Beagimhuthen chum

배김허튼춤은 경남지역의 고유한 춤사위인 “배김사위” 를 바탕으로 한 허튼춤 모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몇 가지의 춤 놀이인 밀양백중놀이, 고성오광대, 동래학춤 등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춤사위인 배김사위는 ‘땅에 힘차게 내려 박는다는 명칭’ 으로 강하고 춤 폭이 크고 멋스러우며, 마당놀이 춤으로서 흥을 땀고 풀어가는 독특한 표현 동작 이라고 할 수 있다.

배김허튼춤의 형식은 기본적인 허튼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토속성이 강한 여러 가지의 배김사위를 가미한 춤이다.

출연 : 하연화, 김민경, 조은정, 김경아, 장재희, 류재철, 조대일, 방형웅



하연화 Ha Yeon Hwa

춤패 배김새 대표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무용연구회 이사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부산지회 부지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수자  
부산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전수장학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서울무용제, 부산무용제, 민족춤제전, 한국무용제전,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국제해변무용제, 지방순회공연 외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공연 참가와  
개인공연 5회를 비롯해 200여회의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무용, 궁중무용, 민속춤, 무예 등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춤꾼이다

(주요작품)

날고싶음에... , 가을 뜨락에 서서,  
빛이 될 때까지, 여름맞이, 빛이 될 때까지Ⅱ,  
퓨전시나위, 쉼, 바다를 건너는 나비,  
나비 날다, 푸른눈물, 길에서 길을 묻다 등